

간추린 이순신 공부

이내원. 서울 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이정은. 버지니아 주립대 법학대학 졸업, 법학박사

이순신은 누구인가?

이순신은 한국 역사상 가장 숭앙 받는 장군이며 해군 제독이다. 한국의 16세기 조선 왕조에서 그의 빛나는 일생동안 그는 7년이나 계속된 임진 왜란에서 일본의 침략을 성공적으로 막아냄으로써 한국을 구해냈다. 나라를 위한 그의 영웅적인 활동과 희생으로 그에게는 고귀한 시호가 부여되었다. 그래서 그를 충무공 이순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왜 이순신은 그토록 존경 받고 또 유명한가?

나라를 위한 이순신의 공헌은 견줄데가 없을 정도이다. 그는 일본에 맞서 한국을 수호하는데 그의 목숨을 바침으로써 그의 공헌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그는 그가 이룩한 놀라운 군사적 승리로 가장 널리 알려졌지만 그의 일생을 통한 행동이 보여 주듯이 그의 생애와 성품을 살펴보면 이순신의 여러 가지 훌륭하고 모범적인 특성들을 분명하게 알게된다. 그가 존경 받고 유명하게 만든 그의 업적과 훌륭한 품성들은 다음과 같다.

1. 군사적 업적

삼도수군의 최고 사령관인 통제사로서 장기간에 걸친 임진왜란에서 일본침략군과 싸운 23 해전에서 모두 성공적으로 나라를 지켜내어 나라를 구했다.

2. 엄청난 어려움을 이겨내는 정신력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룩한 이순신의 놀라운 군사적 승리들은 나라의 도움없이 이룩한 공훈이기 때문에 더욱 빛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정부에서는 지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순신은 군량을 조달하고, 충분한 무기를 마련하며, 전선을 건

조하고, 군사들에게 군복을 마련해 입히며, 군사와 격군을 모집하는 등 군사에 필요한 모든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인류 역사상 전장에서 전쟁준비를 위해 이렇게 엄청난 부담을 감당했던 지휘관은 이순신 밖에 없다. 그가 처한 형편으로는 아주 쉽게 싸움을 포기하고 패배를 자인해 버릴 수도 있었지만 이순신의 위대한 의지와 결의는 그에게 닥친 고난을 참고 이겨내어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게 했다. 더욱이 그의 위대한 정신력은 이순신으로 하여금 그 모든 어려움을 떠안고 지나간 7년의 임진 왜란 내내 일본을 상대로 성공적으로 싸울 수 있게 했다.

3. 독창성과 창의력

전장에서 수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으로 알 수 있듯이 이순신은 기발하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이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자기 정부의 지원 없이 군사력을 조성하고 유지 할 수 있었겠는가? 더욱이 임진 왜란 기간 일본과의 23번의 대결에서 매번 온갖 불리함을 이기고 이룩한 경이로운 군사적 승리는 그의 군사문제 해결과 군사 작전 구상의 독창성과 창의력을 여실히 말해 준다. 이순신의 영민함을 가장 잘 말해주는 실례는 그가 거북모양의 전함임 세계 최초의 방탄 거북선을 만들어 낸 일이다. 이 전함은 적선에게 가공스러우며 무패의 위력을 발휘했다.

4. 인격 완성의 모범적 추구

이순신은 단순히 위대하고 천재적인 군사 전략가일 뿐만 아니라 또 한편 깊은 철학적 사상가 이었다. 그의 일생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 관계에서 행동하고 대하기를 올바르게 하여 바른 사람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다. 그리고 그가 이루고자 한 모든 일에서 그는 눈부시게 뜻을 이루었다. 그의 일생에 걸쳐 이순신은 인류역사상 그 짝이 없는 인격의 형성과 도야를 이룩했다.

이제 위에서 살펴본 그의 찬란한 업적과 인격의 모든 놀라운 실례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출생부터 전사까지 그의 생애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순신의 가문

이순신은 인종임금 원년인 1545년 3월 8일(양력 4월 28일)에 꽤나 가난한 중류 가정인 덕수이씨 가문에 태어났다. 이순신은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가난하고 평범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은 학문과 도의를 귀하게 여기는 품위 있는 가문에 태어났다.

이순신의 선조들은 나라의 은전을 누리고 홍문관 대제학이나 사헌부 장령등, 상당히 높은 관직에서 일했다. 그러나 이순신의 할아버지는 조광조가 이끄는 신진 개혁파의 한 사람으로 당시의 임금인 명종의 심한 박해를 받았다. 이런 연유로 덕수이씨 가문중 이 할아버지 계열은 나라의 버림을 받았고 이순신의 아버지 이정은 나라에서 이렇다할 관직을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의 가족은 가난에 쪼들릴 수 밖에 없었다.

이순신의 젊은 시절



서울에서 사는 어려움과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이순신과 가족은 어머니의 고향인 아산으로 이사를 갔다. 이때가 이순신의 나이 겨우 십여세 될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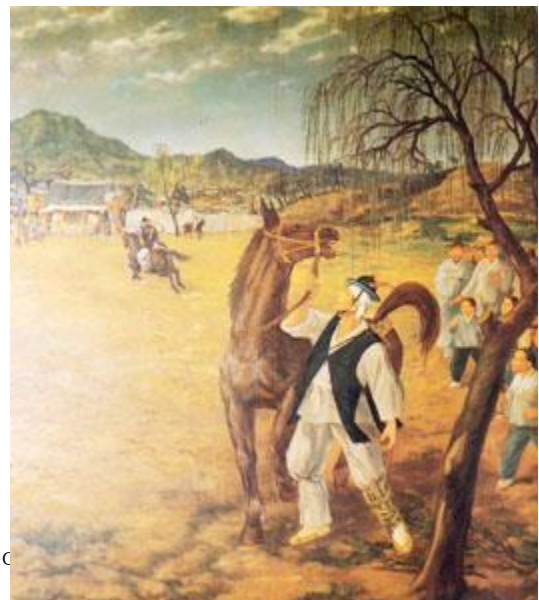
이순신은 명석하면서도 매우 활달한 어린이였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군대 일에 호기심이 있어 전쟁놀이를 즐겼다. 놀이에서도 그는 항상 대장 노릇을 했다.

21살 때 이순신은 진도군수를 지낸 명궁 방진의 외동딸 방 처녀와 결혼했다. 다음해부터 이순신은 말타기와 활쏘기 등을 배우는 무예 훈련을 시작했다.

이순신과 무과 시험

28살 때 이순신은 군관이 되기 위해 국가 최고 군사 시험인 무과 시험에 응시했다. 말을 탄 채로 활쏘기 시험을 보던 중 말에서 떨어져 불합격이 되고 말았다. 말에서 떨어질 때 다리가 부러졌지만 이순신은 한 발로 홀로 일어서서 곁에 있는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부러진 다리를 동여맸다.

이순신은 32살 때 다시 시험을 보아 합격했다.



이순신의 공직생활과 수난



과거시험에 합격한 같은 해 늦게 이순신은 북쪽 국경에 있는 동구비보에서 권관으로 일을 시작했다. 그 당시에는 주된 위협과 대항이 북쪽 중국 만주 지역에서 강을 건너와 인근의 조선 마을을 침공하려는 여진족이 일으키는 말쟁이였다.

이순신은 열심히 일하여 여러 차례의 여진족 침공을 물리쳤다. 그러나 그의 공적과 성공에 대하여 칭찬과 포상은커녕 이순신은 거꾸로 시기심 많은 그의 상관 이 일에 의해 계급을 잃고 백의 종군에 처해졌다. 이 강등은 말 그대로 이순신이 아무 계급 없이 보통의 흰 옷을 입고 일반 병사들과 나란히 근무하는 아주 심한 처벌이었다.

다음 해에 드디어 이순신은 여진의 본거지 시전 부락을 쳐부순 공로를 인정받아 처벌에서 풀려났다. 그러나 그의 군사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은 되풀이 하여 파직과 승진 반대를 당했다. 이는 부패하여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 사욕을 채우려는 그의 직접 상관과 흔히 마찰을 일으키는 그의 곧은 성실성과 정직성 때문이었다. 예를 들면 이순신은 정당하게 승진할 차례가 된 사람을 제쳐놓고 자기 상관의 친구를 승진 시키는 특청을 거절했고 또 자기 상관이 나라의 재물을 사사로이 쓰는 것을 허용치 않았다. 그의 부패한 상관들에게는 이와 같은 요지부동의 성실성이 이순신을 아주 못마땅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전라 좌수사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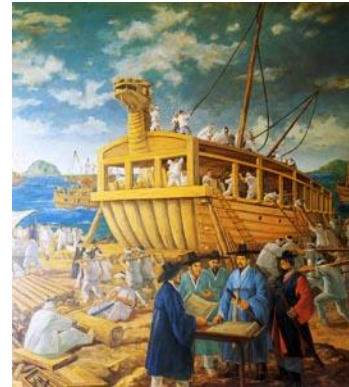


수 많은 파란과 좌절을 겪은 뒤 이순신은 어릴 때 친구인 좌의정 유성룡의 강력한 추천으로 남해 바다를 지키는 지역 해군 사령관인 전라 좌수사로 승진하였다. 이 때 나이 45살이었다.

취임 직후 이순신은 일본과의 전쟁이 임박했다고 확신하며 전쟁 준비에 매진했다. 그는 가지고 있는 모든 방위 설비와 무기를 점검하고 수리했다. 그는 군량과 보급품을 비축했다. 새로운 전함

도 만들었다. 그리고 군사들을 혹독하게 훈련시켰다. 거북선이
라고 부르는 세계 최초의 혁신적인 방탄 거북선을 발명한 것
도 바로 이 때였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일본과의 전쟁이 임박했다는 것을 믿지
않으려 할 때 이순신은 이 모든 일을 스스로 해냈다. 그래서
이순신이 전쟁 준비에 여념이 없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안
일에 취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



임진왜란과 이순신의 압승



이순신이 전라 좌수사에 취임한지 일년 뒤
인 임진년 1592년 4월 13일 약 16만명의
일본 군대가 그 우두머리 토요토미 히데요
시의 명령에 따라 조선의 부산항으로 쳐들
어 왔다. 일본군대는 ‘조총’이라는 오늘날
소총의 구식인 새롭고 가공할 서양식 화약
병기로 잘 무장되어 있었다.

적군의 군세가 어마어마한 것을 알고는 경상도를 지키는 두 수사, 그 중 한 명은 이름이 원
균으로 뒤에 이순신의 가장 시기하는 적수가 되는데, 싸움을 포기하고 도망을 쳤다. 이로
인해 나라의 남해 바다를 지키는 엄청난 책임이 이순신에게 돌아갔다.

1592년 5월 4일 이순신과 그의 함대는 처음으로 일본선박을 만나 싸우기 위해 동쪽을 향
해 출항했다. 3일 뒤 이순신은 판옥선이라고 하는 대포를 장착한 24척의 평저 전함을 이용
하여 일본 해군에 대해 첫 번째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같은 해 6월, 이순신은 일본 해군과 두 번째 대결을 가졌다. 이 대결은 당포와 사천에서 있
었다. 이순신이 새로 개발한 거북선을 처음으로 쓴 것이 바로 이 때이다. 이 거북선은 적선
에 대해 무서운 힘을 발휘했다. 그리고 일본군은 이 새롭고 미처 예상치 못한 무적함의 사
용으로 당황하여 거북선에 대해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리하여 이 새로운 거북선은 끄떡도
하지 않고 적진을 휩쓸었다.

이 해 7월 이순신과 일본 군대는 세 번째로 한산 앞 바다에서 맞 부딪쳤다. 여기에서 이순신은 학익진법, 또는 학의 날개 모양의 포위 공격 전법을 써서 일본군에 대해 대첩을 거두었다. 이순신의 군대는 선박 손실 없이 19명의 인명 손실만 당하면서 적선 59척과 전군 약 9천명을 몰살시켰다.

이 한산 앞바다의 완승으로 이순신은 남해 바다를 완전 장악하여 오늘 날의 서울인 한성에 가까운 서해 바다로 가는 해로를 열고자 하는 일본의 기도를 좌절시켰다. 더욱이 이 한산해전 이후 이순신은 전쟁을 승리로 끝내기 위해 적군과 대결하기를 갈망했으나 일본의 우두머리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자기 해군에게 더 이상 이순신과 싸우지 말라고 명령하는 바람에 그 다음 싸움까지 3년 이상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

한산해전 직후인 1592년 8월 15일 당연히 이순신은 3도 수군의 최고 사령관인 통제사직으로 승진되었다.

이순신의 구속과 백의 종군

일본 첩자가 거짓으로, 사나운 일본장수 가토기요마사가 일본의 대마도로부터 조선에 있는 적군의 본거지인 부산으로 건너 온다고 한 말을 듣고 선조 임금인 이순신에게 부산 앞 바다로 나아가 이름난 적장을 잡아오라고 명령했다. 이순신은 임금의 명령이 거짓 정보와 속임수 때문인 줄 알기 때문에 출전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선조 임금은 이순신에게 화가 나서 그를 구속하고 오늘날의 서울인 한성으로 압송했다. 그 곳에서 이순신은 고문을 받고 명령 불복종 죄로 사형선고를 받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을 대신하여 그의 무죄를 주장하고 일본과의 전투에서 뛰어난 역할을 강조하며 임금에게 탄원을 했다. 선조 임금은 이순신을 사형에서 면제 해주는 대신 그의 일생에서 두 번째 백의 종군에 처했다.

이제 이순신은 계급이 없는 낮은 보통 군인의 신분으로 도원수 권율에게 가기 위해 남해바다로 향했다. 가는 길에 슬프게도 이순신은 어머니가 아산으로 향하던 배위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는 모자간의 사랑 때문으로 아들이 감옥에서 풀려났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나머지 83세의 노모가 사랑하는 아들을 고향 아산에서 만나 보고 싶어 여독을 무릅쓴

때문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어머니는 여행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도중에 사망하고 말았다. 어머니의 죽음을 듣고 이순신은 극도의 슬픔과 절망에 빠지고 말았다.

조선 수군의 전멸

이순신이 구속 강등된 후, 임진 전쟁 초기 싸움터에서 비겁하게 도망쳤으면서도 그 때까지 고위 사령관직에 있던 원균이 수군의 총 사령관인 이순신을 대신하게 되었다. 아마도 임진 전쟁 초기 일본에 맞서 조선을 지킨 이순신의 용기와 승리가 전장에서 도망친 원균 자신의 부끄러운 비겁함과 대조되어 그 때 이후 내내 원균 자신은 이순신의 경쟁자로 성가를 심하게 시기 모략하였다. 그리고 선조 임금도 바로 이 사람으로 이순신을 대신케 하였다.

1597년 7월 15일 이순신이 따르지 않았던 선조 임금의 본래 명령을 따라 원균은 전체 조선 수군 함대를 거느리고 부산 앞바다로 나아갔다. 그러나 이순신이 의심했던 대로 일본군은 잘 짜여진 공격 준비를 마치고 조선 수군을 기다리고 있었다. 결과는 조선 수군의 전멸로 전 수군 함대가 사라졌고 원균 자신도 전사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이순신이 이룩하고 5년여에 걸쳐 그 자신 불멸의 공을 들여 육성한 조선 수군은 사라졌다.

이순신의 명량 해협에서의 승리



이와 같이 일본에 완패를 당한 후, 선조 임금은 이순신을 허겁지겁 삼도 수군 통제사에 재 임명하고 조선 수군을 재건 하라고 지시했다. 일본군이 이미 수도 한성으로 서진 북상할 기미를 보이고 있어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이순신은 신속하게 13척의 판옥평저 전함을 끌어 모으고 해군과 전투 요원을 모집했다. 부산에서 조선 수군이 전멸한 후 절박한 일본 공격을 맞아 싸울 수 있는 새로운 수군을 건설해야 했다.

9월 16일 이순신은 13척의 초라한 판옥선단으로 명량 해협을 가로 막고 한성으로 향하는 일본군의 진격을 막아내기로 하였다. 일본군의 133척 전함에 대항하는 그의 전함은 13척뿐 이었고 전투는 치열했다. 끝해보니 이순신과 그의 군대는 선박 손실 없이 단 2명의 전사자

에 그쳤다. 적군의 전사자는 약 4천명에 이르고 31척의 함선이 격파 당했다.

이 기적의 승리로 이순신은 다시 한성으로 가는 해로를 열려는 일본의 노력을 좌절시키고 나라를 위해 남해바다의 제해권을 되찾았다.

노랑해협에서의 임진왜란 마지막 전투

1598년 11월 19일의 차가운 한 밤중에 이순신은 조선의 순천으로 향하는 5백 척의 일본선단을 공격하기 위해 명나라 진인 도독의 부대와 합류했다. 일본선단은 순천에 일본 거점을 마련하고 있던 그들의 동료 고니시 유키나가와 합류할 예정이었다. 일본의 본 함대와 떨어져 고립되어 있던 고니시 유키나가 부대는 그들의 우두머리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갑자기 죽자 일본의 본 함대와 만나 함께 일본으로 돌아가고자 했다.



그날 밤 약 145척의 이순신과 명나라의 연합함대는 300척의 일본함대에 기습공격을 감행했다. 싸움은 치열했다. 싸움이 끝나갈 무렵, 약 200척의 적선을 격파한 뒤 이순신은 왼손 아래 가슴에 총을 맞았다. 군사들의 사기를 걱정한 이순신은 아들과 조카에게 말하기를 “방패로 내 몸을 가려라, 싸움이 한창 급하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고 했다. 이 말을 한 후 곧 이순신은 절명했다.

이순신의 수 많은 승리와 마찬가지로 노랑해협의 전투는 고난을 이기고 적을 몰아낸 눈부신 것이었다. 적선 300척 중 겨우 50척만 목숨을 구해 살아 돌아갔다. 이 결정적 승리로 임진왜란 7년 전쟁은 끝이 났다.

감동적인 승리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의 죽음으로 큰 슬픔에 잠겼다. 바다도 울고 하늘도 울고 이 위대한 인간, 불패의 영웅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모든 조선의 백성도 울었다. 그러나 이순신의 위대함은 생명의 몸과 숨결이 끊어지더라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사람이 자기 가족과 자기 사회와 자기 나라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완벽한 본보기로서 역사와 우리의 생활에 지워지지 않는 표상을 남기고 있다.